

## 任亂때 飛車개발, 전설의 주인공

# 鄭平九 · 尹達圭

3년 전 우리나라 신문들은 조선조의 선조때 정평구(鄭平九)라는 발명가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비록 임진왜란에 얽혀 생겨난 전설이 확대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1923년 한글학자 권덕규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19세기 초엔 윤달규(尹達圭)도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했었다는 구전(口傳)이 있어 우리나라 옛 발명가·기술자들의 배경을 연구해 보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갑** 자기 나라 경제가 바닥을 맴돌며 우리나라 살림 여기 저기에 주름살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나’는 이미 몇 개의 유럽 노선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일부 노선의 비행편수를 줄였다. 한때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 속으로 크게 펼쳐가는 듯 하더니 그만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비행기라면 누구나 미국의 라이트 형제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책에 비행기의 첫 발명자가 거의 우리 선조인 것처럼 쓰여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다. 임진왜란 때인 조선왕조 선조(宣祖) 때에 정평구(鄭平九)라는 발명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 결론 부분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정평구가 언제 어디서 누구 아들로 나서 언제 죽은 인물인지도 밝히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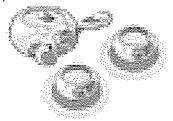
고 있다. 물론 그의 비행기가 어떤 것이었던지도 확실하지 않다.

### 23년 조선어 강독 교재에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글 가운데에는 그가 비행기의 발명자라고 써 놓은 대목이 있고, 그 때문에 가끔은 심심치 않은 화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3년 전인 1995년 초의 일이다. 우리나라 신문들에는 신기한 기사가 하나 실린 일이 있다. 조선 선조때 발명가 정평구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연합통신>이 중국에서 취재해 보도한 것을 신문들이 받아 실은 기사였는데, 1923년 한글학자 권덕규(權惠奎)가 쓴 책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국내 몇 가지 신문의 사회면에 화젯거리로 실었던 것이다. 권덕규의 조선어 강독 교재 「조선어 문경위」라는 책에는 “정평구는 조선의 비거(飛車) 발명가로 임진란 때

朴星來

(한국외대 부총장 / 과학사)



진주(晋州)성이 위태할 때 비거로 친구를 구출해서 30리 밖에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이 책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중국 심양(瀋陽)에 사는 조선족 동포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보고 중국에 특파되어 있는 한국의 통신사 기자가 놀라 써 보낸 기사였다. 그러서는 당연히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는 기사라 생각해 이런 글을 써서 보냈을 터이다. 그 조선족 동포 노인은 일제때 서울에서 자기에게 조선어를 가르친 선생이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인 정평구선생이 임진왜란 때 새가 나는 까닭을 연구한 끝에 비거를 발명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장을 해치는 등 왜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도 증언했다.

### 임진난에 얽혀 생겨난 전설

게다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1903년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미국의 라이트형제보다 무려 3백년 이상이나 앞서 비행기를 발명한 셈이라는 논평까지 덧붙여 놓았다. 그런데 이 발명가 정평구에 대해서는 백과사전 등에는 전혀 써있는 것이 없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정말로 3백년도 더 전에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했던 걸까? 그러면 그 비거는 그 후 어떻게 되었던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그 유명한 미국의 라이트형제는 비행기 발명의 영광을 이제 한국인에게 돌려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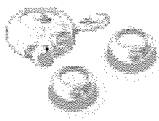
임진란에 얽혀 생겨난 전설이 잘못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평구가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설은 권덕규의 책에 처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책에도 써있는 ‘알려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제시대 교육자들은 이런 전설이라도 들먹이며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발명에 능하고 창조적 민족이었던가를 가르치려고 힘썼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설은 실제 비행기가 발명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뿐이다.

정평구의 비거(또는 비차)에 대해서는 진단학회에서 30여년 전 내놓아 아직도 널리 사용되는 7권 짜리 「한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국사」 근세전기편에 임진란 때에 발달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을 소개하는 대목에는 몇가지 대포 종류와 화차(火車) 등을 소개한 다음 “또 비차가 발명되었었다는 전설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비차에 대해 추가 설명이 주(註)로 달려 있는데, 거기에 정평구의 일화가 들어있다. 임진란 때 영남의 어느 성이 적에게 포위당해 있을 때, 그 성주와 친한 정평구가 비차를 만들어 타고 들어가 성주를 구해가지고 날아 30리 밖으로 비행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설에 대해 전라도에서는 그 사람이 김제(金堤) 사람 정평구라고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故事通)에서 얻은 것이라고 진단학회 「한국사」는 밝히고 있

다. 최남선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의 대표적 조선인 학자이며 문필가였고, 진단학회의 「한국사」 역시 학술적 저서이니, 그런 과정을 거쳐 걸러진 정보를 마냥 모른척할 수만도 없게 되었다.

그러면 앞에 중국의 교포가 갖고 있는 국어학자 권덕규의 책이나 최남선의 책은 거의 비슷한 일제시대의 글들인데, 권덕규와 최남선은 또 어디서 이런 전설을 전해 들어 적어 놓은 것일까? 아마 그들은 1830년 대쯤 쓴 것으로 보이는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책에서 이를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규경은 이 책에서 앞에 나온 그 전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평구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당시 서양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임진란 때 만들어 성주(城主)를 구해내는 데 사용했다는 비거에 대해서는 호남 순창(淳昌) 사람 신경준(申景濬)이 과거 시험문제로 교통기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자 그 답안을 작성할 때 비거 얘기를 썼다는 말이 붙여져 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비거만드는 방법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이규경은 써 놓고 있다. 이규경은 이어서 자기가 들었던 다른 소문을 소개하고 있다. 즉 원주(原州)의 어떤 사람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거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풀을 엮어 만드는데, 이 비거에는 4명이 탈 수 있는데, 새 모양을 하고 바람을 일으키



면 공중으로 올라가 날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사람 김시양(金時讓)의 말에 의하면 호서의 노성(魯城) 사람 윤달규(尹達圭)는 여러 가지 교묘한 장치들을 잘 만드는데, 비커만드는 방법도 잘 기록해 두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정평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보를 얻어낼 길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인물에 대해 상세한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더욱 흥미로운 사실로 19세기 초에 충청도 사람 윤달규도 비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평구, 윤달규 등 이렇게 발견되는 우리의 옛 발명가 기술자들의 배경을 연구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 그 후손이 나타나 무슨 자료라도 제시한다면 재미있는 새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이 정말로 지금의 비행기에 해당할만한 새 발명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평구와 윤달규 등의 재능이 당시 어떤 신기한 기구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창조 정신을 드러내 줄 것만은 틀림없지 않을까?

### 대원군도水上 비행선 제조

비슷한 잘못된 비행기 발명의 전설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 경우는 앞에 인용한 진단학회 <한국사> 최근세편에 영똥한 잘못이 버젓이 들어 있는 것이다. 대원군이 수상용 비행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비록 실제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라이트 형제보다 30여년 앞섰다는 설명이

이 책의 본문에 들어있다. 이는 대원군이 1867년 쯤에 만들어 실험했던 비선(飛船)을 가리킨다. 얼핏 보아 틀림없는 비행선의 원조로 오인되기 쉬워서, 이 책에만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옛 문물과 역사에 대해 글을 많이 쓰는 다른 분도 똑같은 잘못을 범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원군의 비선 역시 비행기나 비행선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이름에 ‘나를 비(飛)’자가 붙어 그런 오해를 받을 뿐이지 그것은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 본 배에 불과하다. 대원군은 서양 대포의 위력 앞에 어떻게 하면 구멍 뚫린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없을까 궁리하던 끝에 비선을 만들어 보았다. 두루미나 학 등의 깃털을 배 옆에 잔뜩 붙여서 배가 포탄을 맞아 구멍이 뚫려도 깃털 덕택에 가라앉지 않게 해 보려던 노력이었다. 전국의 포수들을 못살게 해서 깃털을 잔뜩 수집해다가 비선을 만들었지만, 막상 배를 물에 띄웠더니 아교가 녹아 깃털이 떨어져 제대로 실험도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정평구와 윤달규의 비커(또는 비차)도, 대원군의 비선도 비행기의 조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앞의 경우는 전혀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전설에 지나지 않으며, 뒤의 경우는 배를 잘못 생각해서 온 오해일 뿐이다.

진짜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라이트형제의 비행기가 성공한 지 10년 뒤인 1913년의 일이었다. 1913년 일본 해군 기술장교 나라히라(奈良原三次)가 일본 정부의 명으로 만든 비행기를 몰고 와서 서울

용산의 연병장에서 시험 비행을 했다. 그 당시 수준이란 ‘사람을 태운 기계 장치가 하늘에 떴다가 내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선 땅에 처음 비행기가 나른 사건이었다. 다음에는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 1914년 8월, 1916년 10월 시험 비행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세번째 비행은 수많은 조선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때마침 서울에서는 박람회 열려 이 비행 시범이 전국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 1917년 5월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곡예 비행은 여의도에 모인 5만의 조선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미스의 ‘붉은 날개’는 하늘에서 공중돌기예다가 스핀 비행을 거듭하여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기 끝에 착륙한 그는 맥주 한 병을 들고 자동차를 타고 장내를 돌며 관중의 환호에 손들어 대답했다. 이 하늘의 영웅에 감탄한 조선의 젊은이 하나가 일본에 건너가 비행사가 되어 귀국 비행을 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의 일이었다. 안창남(安昌男)이 1922년 12월 10일 여의도를 떠나 서울 상공을 일주하며 갖가지 곡예를 퍼자 조선인들은 흥분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의 상징인양 당시 조선인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열광적 관심을 높여주지 못했다. “떴다 보아라/안창남 비행기--/굽어 보아라/엄복동 자건거--”라는 노래가 유행하는 시절이었다.

이런 우리의 비행 역사 속에 정평구(鄭平九)의 자리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